

살라만드라

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감동하지 않고 명상에 잠길 수 있는 회의론자를, 17세기 영국의 학자 영(Yonug)박사는 불 속에서 타지않는 「살라만드라」에 비유하였다.

살라만드라(Salamander)는 실존하는 동물로서 화사(火蛇)라고도 하고 불도마뱀이라고도 부른다. 또, 불을먹는요술사(Fire-eater)라는 별명도 있다. 우선 우리의 친구 살라만드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를 보자.

<표> 방화의 상징 살라만드라

| 구 분 | 상징적 의미 | 사실적 의미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존 재 | ○불도마뱀 | ○한국·일본 등지에서 발견되는 도롱뇽(山椒魚) |
| 생 태 | ○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은 살라만드라가 불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을 끌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불꽃을 보면 마치 정복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꽃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함. | ○속이 빈 통나무 등에서 동면하다가 장작과 더불어 불속에 들어가면 신체의 기공(氣孔)으로부터 유유와 같은 액을 다량 분비하여, 잠이깨어 탈출할 때까지 자기의 몸을 불로부터 방어. |
| 용 도 | ○살라만드라의 가죽을 방화용작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며, 석면직물의 기원으로 풀이함. | ○전설의 불도마뱀과 이름이 같은 도롱뇽의 껍질을 방화용 직물로 사용. |
| 어 원 | ○Salamander ①한국, 일본 특산의 도롱뇽 ②불속에서 산다는 전설상의 동물(불도마뱀) ※Salamander를 어원으로 하는 Salamandrine은 “耐火”이 뜻이 있음. | |

살라만드라는 전설상의 불사조(不死鳥) 등과는 달리 지구상에 살아있으면서도 불과 더불어 전설같은 이야기가 얽힌 흥미있는 동물이다.

16세기 이탈리아의 조각가 첼리니 경이 다섯살 무렵의 일이었다. 벽난로에서 참나무 장작불이 기분 좋게 타고 있을 때 그의 부친은 불속에 있는 동물을 보게한 후 갑자기 아들의 따귀를 때렸다. 울기 시작한 그를 달래며 부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 “내가 너를 때린 것은 잘못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불 속의 조그만 동물이 살라만드라 라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시키기 위해서다. 이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이제까지 사람의 눈에 띈 일이 없었다.”

이 이야기는 유럽 최초의 자서전이라는 「벤베누토 첼리니의 생애」에 기록되어 있다.

林語堂은 蘇東坡의 사상을 불(火)로 상징하여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. 소동파의 성품이나 생애 그 자체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가는 곳 마다 용기와 생명력을 넣어 주었고, 동시에 어떤 것 들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.

그렇게 상징 되던 東坡가 노년에 귀양지인 담주(擔州)에서 동생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보자.

“이곳의 기후는 습기차다.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쯤에는 모든 물건 들이 다 썩어버린다. 사람이 돌이나 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이런 날씨를 어떻게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겠는가? 그런데도, 나는 이곳에서 80, 90세 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100세가 넘는 노인들도 많은 것을 보았다. 이를 보니 장수의 비결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불도마뱀은 불 속에서도 살 수 있고, 누에의 알들은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...”

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자 풍수도참설을 빌어 이를 무마하려고 동원한 동물이 「해태」였고, 미국방화협회(NFPA)가 1951년 소방의 심볼로 지정한 것이 「스파크견(spark犬)」이다.

우리나라 원산의 살라만드라(불도마뱀)를 火災豫防의 상징으로 정하면 어떨까.

<위험관리부> 金 東 一